

대학생의 경제적 불안과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

이은숙* · 서정희**

* 의류학전공 · ** 아동·가정복지전공

<요약>

본 논문은 울산광역시 소재의 울산대학교 남녀 대학생 733명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경제적 불안유형과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그리고 소득액수유입의 불규칙성에 따라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일원분산분석에서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 성별,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등의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황에서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는 경제적 불안의 하위차원중 재정불안과 상대적 박탈불안 변수로부터 의미있는 영향을 받았으나 소득불안, 물가불안, 그리고 고용불안 변수들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University students' economic distress and fashion pursuit in clothing consumption attitude

Eun Sook, Lee* · Jeonghee, Seo**

*Dept. of Clothing & Textiles ·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university students' economic distress and fashion pursuit in clothing consumption attitud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fashion pursuit in clothing consumption attitude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sex, age, the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the monthly household income, irregularity of income amount flow. 2) The fashion pursuit in clothing consumption attitude was significantly differed from the financially weak type and relatively deprive weak type among the economic distress 5 types.

I. 서 론

산업혁명이후 자본주의의 발전은 제품의 대량생산 확대와 대중매체의 발달을 가져와 제품의 다양화, 소비자의 자기가치중심적인 욕구분출, 소비층의 분종화현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시장환경속에서 제품 중에서도 특히 패션성이 강한 의류제품은 더 이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한 소비재로서가 아닌 개인취향의 표현이나 브랜드 선호중심의 소비재로서의 기능이 보다 강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대의 소비자는 각종 생활 소비행위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며,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를 이루기 위하여 유행을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한다. 제품에 대한 유행추구는 국민경제의 필요불가결한 구성요소이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유행추구현상을 보이게 되면 경제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국제간 치열한 자유경쟁과 시장개방, 현저한 기술의 발달이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소득과 고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계는 소득과 고용의 두 측면에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Voydanoff, 1990).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적 변화, 즉 1997년 말 IMF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적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로 인하여 유행추구적 소비태도를 지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행추구는 가정경제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유행추구의 조절은 건전한 가정경제를 유지시켜주는 한편, 때에 따라서는 유행을 따르기 위한 과도한 비용의 지출로 가정경제에 타격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안이 유행추구적 의류소비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태도 유형을 밝힐 수 있는 기초자료 뿐 아니라 건전한 소비자교육정책 수립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경제적 불안의 개념과 차원

Voydanoff, Donnelly, Fine 등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인 경제적 불안은 가족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가계의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한 문제를 말한다. 경제적 불안은 하나의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어떠한 차원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Voydanoff와 그의 동료들은 경제적 불안에 관한 일련의 연구에서(1984, 1988, 1989, 1990) 경제적 불안은 소득불안과 고용불안의 두 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국제간 자유경쟁과 시장개방,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소득과 고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계는 소득과 고용의 두 측면에서 불안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설명하였다.

황덕순(1995)은 가계의 경제적 불안은 Voydanoff와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소득불안과 고용불안 이외에도 재정불안, 물가불안 및 상대적 박탈불안을 추가함으로써 5개의 하위차원이 있다고 하였다. 재정불안은 가계의 수지불균형으로부터 파생하는 재정구조가 취약할 때 경험하게 된다. 고용, 소득 및 재정은 가계의 내적 구성요소인데 반하여 가계의 외적

환경에서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물가불안은 경제적 불안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소득불평등으로 나타나는 상대적 박탈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규범적 생활표준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불만이므로 경제적 불안의 하나의 구성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본 논문은 경제적 불안의 어떠한 차원이 유행추구적 의류소비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므로 경제적 불안의 구성차원을 소득불안, 고용불안, 재정불안, 물가불안, 그리고 상대적 박탈불안의 5개로 규정하였다. 1997년 말부터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파산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실업을 야기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고용불안, 소득불안 및 재정불안을 심각하게 경험하게 하고 있고, 물가불안도 가중시키고 있다. 고소득층은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득을 보는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실질소득의 감소가 크게 증가하여 소득불평등도가 커짐으로써 상대적 박탈불안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유행추구적 의류소비태도의 개념

우리들 모두는 누구나가 소비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소비재 중에서 패션성이 강한 의류제품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류제품 소비자로서의 역할은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외에 우리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의류업체의 관점에서 제품을 얼마만큼 생산하여 얼마의 가격으로 누구를 타켓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줌으로써 기업간의 경쟁과 성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하는 측면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소비자는 의류제품을 구매시 자신의 개인적 특질과 제품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제품의 특성은 크게 본질적 특성과 비본질적 특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자신들의 다양한 취향과 개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의류의 경제성, 기능성에 초점을 둔 소비태도가 아니라 자신만의 감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유행추구성에 보다 더 큰 관심을 내보이며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유행은 비본질적인 특성일지라도 이미지창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자신을 표현하려는 의지와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충족시키려는 상반된 욕구를 동시에 가지며 이러한 모순된 욕구들이 유행을 창조하고 존속시킨다. 사람들은 독특하고 눈에 띄는 것을 채택하게 되며 독특하다는 느낌에서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유행을 추구하게 된다. 사람들은 유행추구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심리적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한 자아를 보호받을려고 한다. 즉 타인을 따르는 의존적 성격을 허용하고 군중과 더불어 행동함으로써 자기나름대로의 취향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유행추구적 소비태도를 보이게 되는 경향이 더 높다.

시대변화에 따른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고도의 산업화로 인한 소비자 성향이 90년대의 물질풍요 정보포화 상태속에서 자기확립과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개성추구형으로 유행추구적 의류소비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정인희 등(1999)에 의하면 유행관련 요인의 개념적 구성내용들을 검토하여 보면 유행대상으로서의 의복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혹은 유행 현상 자체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인 태도 이외에도 의복의 표현적 기능에 대한 관심, 즉 새로운에 대한 추구, 다양성 추구, 의복을 통한 과시, 주의집중 욕구, 개성표현 욕구, 구별 욕구, 심리적 편안함 인식, 상황적 합성 인식, 타인에 대한 인상관리, 유행 추종, 동조 욕구, 모방 욕구, 선정성, 체형의식, 세련됨 등이 유행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 속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는 자신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소비태도를 말한다.

3. 경제적 불안과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

선행연구를 고찰한 바에 의하면 경제적 불안이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제적 불안유형에 따라 소득원천의 수, 소득불규칙성, 월평균 소득, 자산의 크기 등이 의미있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등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황덕순, 1995), 경제적 불안유형과 사회인구학적 변수, 소득관련변수 및 소비지출변수들과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서정희 등, 1998) 등이 있으나 의류제품에 있어서의 유행추구적 소비태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경제적 불안, 즉 5개의 하위차원과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와의 관계를 밝혀보자 한다.

III. 연구문제

본 논문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 <연구문제 2> 경제적 불안유형과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IV. 연구방법

1. 조사도구의 구성

본 논문의 조사도구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로서 가계의 경제적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경제적 불안 척도는 황덕순(1995)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물가불안은 물가상승에 대한 주관적 느낌과 예측을 묻는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불안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부터 불안스러운 것까지 정도에 따라 0-4점까지 분포하므로 1-12점의 분포를 갖는다.

소득불안은 소득으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와 살아가는데 소득이 얼마나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소득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0점부터 4점까지 부여하였으므로 소득불안 점수는 0-16점의 범위를 갖는다. 고용불안은 앞으로 대학생의 가장이 얼마동안 현재의 직업에 종사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는 가와 만약 지금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재취업의 가능성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를 묻는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고용불안척도는 0-8점의 분포를 갖는다.

재정불안은 여러 가지 재정상황에 대한 만족/불만족감을 묻는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재정불안은 1점부터 5점까지 주었으므로 5-25점의 분포를 갖는다. 상대적 박탈불안은 Andrews와 Withey(1976)의 9점 사다리 척도를 0-11점을 부여하는 11점 척도로 바꾸어 만든 생활수준 사다리에서 현재 자신의 형제자매, 이웃, 친구, 우리 사회 일반의 생활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합산한 다음, 자신의 생활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점수에 4를 곱한 후 그 차를 구하였다.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는 기존의 선행연구(Stephens,1985; 장경혜, 1996)를 참고로 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수는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4점을 주는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조사대상의 표집과 자료수집

본 논문은 울산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울산광역시의 경우 대학이 울산대학교 하나이기 때문이다. 성별, 학년, 전공계열의 분포를 고려하여 유의표집하였다. 본 조사는 1998년 3월 23일부터 31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불성실하게 응답된 자료를 제외한 총 733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백분율을 구하였다. 사회인 구학적 변수와 유행추구적 의류소비행동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검증을 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 결과 의미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경제적 불안을 구성하고 있는 5개의 하위차원인 물가불안, 소득불안, 고용불안, 재정불안, 그리고 상대적 박탈불안이 하나씩 포함된 중분류분석을 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35.3%, 여학생이 64.7%를 차지함으로써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많이 표집되었으며, 학년은 3학년이 많이 표집되었고, 1학년이 매우 적었다. 연령은 21세 이하가 22.0%, 22세가 26.2%, 23-24세가 25.6%, 25세 이상이 26.2%를 차지함으로써 고르게 표집되었다.

주거상태는 자택이 73.6%로 가장 많고, 자취도 17.2%를 차지하였다. 종교는 무교가 4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불교로 31.2%를 차지하였고, 구교와 신교를 포함한 기독교가 22.0%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51.9%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이 18.3%로 가장 적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상이 46.1%로 가장 많았고, 초등졸 이하가 20.4%로 가장 적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생산직이 2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문관리직으로 20.7%, 판매서비스직은 19.5%, 사무직과 기타가 각각 19.1%를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직업은 비취업이 66.4%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200만원 이상이 29.1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20만원 이하가 26.2%, 150-200만원이 23.0%를 차지하였다. 한달 용돈의 크기는 10-20만원이 49.9%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은 20~30만원으로 26.3%를 차지하였고, 10만원 미만이 11.75%로 가장 적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단	빈도	백분율(%)
성별	남	258	35.3
	여	472	64.7
학년	1	4	.6
	2	162	23.4
	3	297	42.9
	4	229	33.1
연령	21세 이하	160	22.0
	22세	190	26.2
	23~24세	186	25.6
	25세 이상	190	26.2
본인의 주거 상태	주택	538	73.6
	자취	126	17.2
	하숙	7	1.0
	기숙사	41	5.6
	기타	19	2.6
종교	무교	339	46.4
	불교	228	31.2
	기독교	161	22.0
아버지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216	29.8
	고졸	377	51.9
	대학이상	133	18.3
어머니의 교육 수준	국졸이하	147	20.4
	중졸	241	33.5
	고졸이상	332	46.1
아버지의 직업	전문·관리직	143	20.7
	판매·서비스직	135	19.5
	생산직	149	21.5
	사무직	133	19.1
	기타	132	19.1
어머니의 직업	취업	237	33.6
	비취업	469	66.4
월평균 가계소득	120만원 미만	181	26.2
	120~150만원 미만	150	21.7
	150~200만원 미만	159	23.0
	200만원 이상	201	29.1
한 달 용돈의 크기	10만원 미만	85	11.7
	10~20만원 미만	363	49.9
	20~30만원 미만	191	26.3
	30만원 이상	88	12.1

* 결측값으로 인하여 빈도 차이가 있음

2) 대학생의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의 수준

<표 2>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의 평균은 13.03이며 분포도는 중 57.8%, 하 40.4%, 상 1.8% 순으로서,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가 비교적 전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의 견천한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를 보이는 것은 본 조사가 IMF 경제위기가 나타난 직후인 1998년 3월에 조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표 2>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의 경향

범위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	백분율
하	6-12	40.4
중	13-18	57.8
상	19-24	1.8
평균	13.03	
표준편차	2.81	
전체범위	6-22	

V. 연구결과와 해석

1.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와의 관계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으며($F=16.85$, $p<.001$), 연령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고($F=5.83$, $p<.001$) Scheffee' 검증결과, 22세 및 21세 이하 집단과 25세 이상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고($F=4.64$, $p<.05$) Scheffee' 검증결과, 중졸이하 집단과 고졸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고($F=7.47$, $p<.001$) Scheffee' 검증결과, 초등졸 이하 집단과 고졸 이상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고($F=3.88$, $p<.01$) Scheffee' 검증결과, 120만원 미만 집단과 200만원 이상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고($F=3.27$, $p<.05$) Scheffee' 검증결과, 소득유입액수가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는 집단과 항상 틀리다는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종교, 주거상태,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취업여부, 한달용돈의 크기, 그리고 소득유입시기의 불규칙성에 따라서는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SPSS PC+ 프로그램에서는 중분류분석을 하기위한 분산분석에서 5개의 독립변수만을 모델에 포함시킬 수 있어, 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큰 변수 중에서 설명력이 더 큰 변수를 중분류분석 모델에 포함시켰다. 즉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월평균 가계소득과 소득유입 액수의 불규칙성 중에서는 월평균 가계소득을 중분류분석을 위한 모델에 포함시켰다.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변수	집단	빈도	백분율	평균	F비	Scheffe'
성별	남	252	47.64	12.50	16.85** *	
	여	277	52.36	13.48		
연령	21세 이하	99	18.64	13.53	5.83***	a
	22세	115	21.66	13.59		a
	23-24세 이하	132	24.86	13.02		ab
	25세 이상	185	34.84	12.41		b
종교	무교	247	46.87	12.96	.96	
	불교	163	30.93	13.27		
	기독교	117	22.20	12.84		
주거상태	주택	370	69.55	13.14	1.97	
	기타	162	30.45	12.77		
아버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61	30.67	12.50	4.64*	a
	고졸	268	51.05	13.34		b
	대졸 이상	96	18.29	13.02		ab
어머니의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114	21.43	12.29	7.47***	a
	중졸	175	32.89	12.89		ab
	고졸 이상	243	45.68	13.47		a
아버지의 직업	전문관리직	101	20.32	13.29	.57	
	판매 서비스직	94	18.91	12.87		
	생산직	103	20.72	12.86		
	서비스직	199	40.04	13.11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	334	62.78	13.10	.58	
	비취업	198	37.22	12.91		
월평균 가계소득	120만원 미만	135	25.47	12.33	3.88**	a
	120-150만원 미만	105	19.81	13.34		ab
	150-200만원 미만	115	21.70	13.17		ab
	200만원 이상	175	33.02	13.28		b
한달 용돈의 크기	10만원 미만	58	10.92	12.38	1.44	
	10-20만원 미만	253	47.65	13.00		
	20-30만원 미만	144	27.12	13.20		
	30만원 이상	76	14.31	13.28		
소득유입 시기의 불규칙성	항상 같은 날짜에 들어온다 거의 같은 날짜에 들어온다. 일정한 날짜에 들어오지 않는다	200 151 175	38.02 28.71 33.27	13.16 13.31 12.61	3.00	
	매달 소득이 같다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 항상 틀리다	72 343 112	13.66 65.09 21.25	13.21 13.18 12.42		ab
						a
						b

*:p<.05 **:p<.01 ***:p<.001

a,b는 scheffe' 검증 결과임.

2. 경제적 불안유형과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와의 관계

<연구문제 2> 경제적 불안유형과 의복소비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물가불안과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

<표 4>에 의하면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p < .05$ 수준에서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나 성별, 연령, 월평균 가계소득, 그리고 물가불안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독립변수들은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 분산의 7.0%를 설명해주며, 이 설명력의 크기는 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가불안의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4> 물가불안에 따른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에 대한 중분류분석 결과

총평균 = 13.02					
변수	집단(빈도)	총편차	Eta	순편차	Beta
성별	남(251)	-.52		-.24	
	여(277)	.47	.18	.21	.08
연령	20-21세 이하(99)	.51		.24	
	22세(116)	.57		.33	
	23-24세 이하(132)	.03		.01	
	25세 이상(182)	-.66	.19	-.35	.10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이하(113)	-.73		-.53	
	고졸(176)	-.14		-.13	
	대졸이상(240)	.45	.16	.35	.12*
월평균 가계소득	120만원 미만(134)				
	120-150만원	-.67		-.50	
	미만(106)	.32		.29	
	150-200만원	.15		.06	
	미만(116)	.23	.14	.17	.11
200만원 이상(173)					
물가불안(raw regression coefficient)					
Multiple R Squared					
Multiple R					

*: $p < .05$

2) 소득불안과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

<표 5>에 의하면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p < .05$ 수준에서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나 성별, 연령, 월평균 가계소득, 그리고 소득불안

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독립변수들은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 분산의 6.6%를 설명해주며, 이 설명력의 크기는 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득불안의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소득불안을 느낄 경우 의복 소비를 자제하는 경향이 나타날 뿐 아니라 비록 의복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기능적이거나 경제적 추구성의 의복소비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고용불안과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

<표 6>에 의하면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p < .05$ 수준에서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나 성별, 연령, 월평균 가계소득, 그리고 고용불안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독립변수들은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 분산의 7.0%를 설명해주며, 이 설명력의 크기는 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용불안의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낄 경우 가계소득의 불안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복소비 자체를 자제하는 경향이 나타날 경우가 크므로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는 낮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표 5> 소득불안에 따른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에 대한 종분류분석 결과

총평균 = 13.03					
변수	집단(빈도)	총편차	Eta	순편차	Beta
성별	남(250)	-.52		-.23	
	여(277)	.47	.18	.20	.08
연령	20-21세 이하(99)	.50		.26	
	22세(116)	.56		.31	
	23-24세 이하(132)	.02		.01	
	25세 이상(181)	-.65	.18	-.34	.10
어머니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112)	-.71		.52	
	고졸(176)	-.14		-.14	
	대졸이상(240)	.44	.16	.35	.12*
월평균 가계소득	120만원 미만(133)	-.65		-.50	
	120-150만원 미만(106)	.31		.26	
	150-200만원 미만(116)	.14		.07	
	200만원 이상(173)	.22	.14	.18	.11
소득불안(raw regression coefficient)					
Multiple R Squared					
Multiple R					

*: $p < .05$

<표 6> 고용불안에 따른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에 대한 중분류분석 결과

총평균 = 13.00					
변수	집단(빈도)	총편차	Eta	순편차	Beta
성별	남(232)	-.53		-.20	
	여(264)	.46	.18	.17	.07
연령	20~21세 이하(95)	.49		.26	
	22세(110)	.62		.41	
	23~24세 이하(121)	.00		-.02	
	25세 이상(171)	-.67	.19	-.39	.11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이하(103)	-.75		-.56	
	고졸(167)	-.15		-.15	
	대졸이상(226)	.46	.17	.37	.13*
월평균 가계소득	120만원 미만(120)				
	120~150만원	-.65		-.48	
	미만(103)	.33		.30	
	150~200만원	.13		.06	
	미만(111)	.18	.13	.12	.10
200만원 이상(161)					
고용불안(raw regression coefficient)					-.084
Multiple R Squared					.070*
Multiple R					.265

*:p<.05

4) 재정불안과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

<표 7>에 의하면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재정불안은 $p < .01$ 수준에서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며 재정불안이 낮을수록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성별, 연령, 그리고 월평균 가계소득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독립변수들은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 분산의 7.2%를 설명해주며, 이 설명력의 크기는 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재정불안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7> 재정불안에 따른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에 대한 중분류분석 결과

총평균 = 13.01					
변수	집단(빈도)	총편차	Eta	순편차	Beta
성별	남(248)	-.52		-.23	
	여(269)	.48	.18	.21	.08
연령	20-21세 이하(97)	.50		.25	
	22세(112)	.64		.38	
	23-24세 이하(128)	.00		-.02	
	25세 이상(180)	-.67	.19	-.36	.11
어미니의 교육수준	중졸이하(112)	-.72		-.50	
	고졸(170)	-.15		-.11	
	대졸이상(235)	.45	.16	.32	.12*
월평균 가계소득	120만원 미만(132)				
	120-150만원	-.66		-.37	
	미만(104)	.34		.35	
	150-200만원	.13		.06	
	미만(115)	.22	.14	.03	.09
200만원 이상(166)					
재정불안(raw regression coefficient)				-.080**	
Multiple R Squared				.072**	
Multiple R				.269	

*:p<.05

5) 상대적 박탈불안과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

<표 8>에 의하면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황에서 어미니의 교육수준은 $p < .05$ 수준에서, 상대적 박탈불안은 $p < .01$ 수준에서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 박탈불안이 낮을수록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성별, 연령, 그리고 월평균 가계소득은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독립변수들은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 분산의 7.6%를 설명해주며, 이 설명력의 크기는 주로 어미니의 교육수준 및 상대적 박탈불안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8> 상대적 박탈불안에 따른 의복소비태도에 대한 중분류분석 결과

총평균 = 13.06					
변수	집단(빈도)	총편 차	Eta	순편 차	Beta
성별	남(227)	-.51		-.18	
	여(259)	.45	.17	.16	.06
연령	20~21세 이하(93)	.58		.38	
	22세(111)	.51		.29	
	23~24세 이하(114)	.05		.04	
	25세 이상(168)	-.69	.19	-.43	.12
어미니의 교육수준	중졸이하(106)	-.69		-.43	
	고졸(158)	-.22		-.21	
	대학이상(221)	.49	.17	.36	.12*
월평균 가계소득	120만원 미만(132)				
	120~150만원	-.66		-.40	
	미만(104)	.24		.23	
	150~200만원	.16		.08	
	미만(115)	.28	.14	.13	.09
200만원 이상(166)					
상대적 박탈불안(raw regression coefficient)				-.031**	
Multiple R Squared				.076*	
Multiple R				.276	

*:p<.05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가 높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도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에서는 120만원 미만 집단과 200만원 이상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소득유입액수의 불규칙성이 낮을수록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불안의 5개 하위차원이 각각 포함된 중분류분석모델의 경우 대학생 소비자들은 가정경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소득원이거나 가정소비의 주체자가 아닌 까닭으로 경제적 불안 하위차원 중에서 본인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불안 및 상대적 박탈불안과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와의 관계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경제적 불안유형에 따라 대학생의 소비지출이 어떠한 차이가 보이는지를 분석한 서정희 등(1998)의 연구에서 경제적 불안유형중 소득재정취약형은 3개월간 외출복 의류지출비를 적게 하고 있음

을 밝힌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유행추구적 의복소비태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소비자는 최근 소비를 확대하는 주도적인 연령층으로 부각되고 있고 마케터들의 주요한 표적시장이 되고 있는 만큼 그들의 올바른 소비자 역할학습은 전,후세대의 소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전한 소비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방안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자를 확대하여 서로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경제적 불안유형과 의류제품 구매태도 및 행동간의 관계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서정희·염수경(1998). 대학생의 경제적 불안 유형과 소비지출. 울산대학교 자연과학논문집 제8권 1호:139-155.
- 정인희·이은영(1999). 의복 착용 동기와 유행 현상의 상호작용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권1호:128-139.
- 황덕순(1995).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ndrews, F.M. & Withey, S.B.(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Plenum Press. New York.
- Stephens, S.H.(1985). Attitude Toward Socially Responsible Consumption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and Investigation of Relationships to Clothing Acquisition and Discard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Voydanoff, P.(1984). Economic distress and families:Policy issues. Journal of Family Issues. 5. 273-288.
- _____(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Nov.):1099-1115.
- Voydanoff, P. P, Donnelly, B.W.(1987). Economic distress and mental health : The role of family coping resources and behavior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39-161.
- Voydanoff, P, Donnelly, B.W. & Fine, M.A.(1988). Economic distress, social integration, and family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9. 545-564.